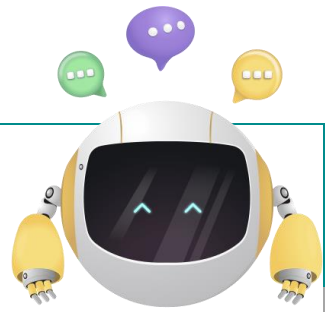


빅테크 수장들의 AI 프레임 선점 경쟁

Tech&Stock Weekly | 2026.07.16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구글(GOOG.LS): 딥마인드 CEO, 프런티어 AI에 'FINRA 모델' 자율규제기구 제안

-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프런티어 AI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새 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를 심사할 독립 표준기구(Standards Body) 신설을 공개 제안. 모델은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FINRA(금융산업규제국). 프런티어 모델을 테스트하고 출시 관련 모범 관행을 개발하는 역할을 상정
- 작동 방식은 단계적 설계. 초기에는 프런티어 랩들이 출시 최대 30일 전 자발적으로 모델을 기구에 제출해 심사받고, 평가 프로토콜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미국 시장 배포의 통과 요건으로 공식화하는 구조. 출시 후 발견되는 중대 취약점도 기구와 협력해 대응하는 방안 포함
- 제안의 직접적 배경은 앤스로픽의 Mythos와 오픈AI의 Sol에 대해 미 정부가 수행한 임시방편식 심사. 해당 심사는 기술 전문성 부족과 출시 허용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은 상태. 사전 정의된 프로토콜 없이 사안별로 진행되는 정부 심사를 상설 기구로 제도화하자는 취지
- 거버넌스 구조는 미 정부가 뒷받침하되 AI 업계가 자금을 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인력은 오픈소스 진영 대표와 업계 내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 인력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AI 랩들이 부담. 특정 리스크에 특화된 AI 안전 전문 그룹들에 평가 일부를 외주하는 방안도 제시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사티아 나델라 CEO "기업들은 AI에 두 번 지불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업들의 폐쇄형 AI 모델 사용에 대한 이례적 경고를 내놓음. 오픈AI와 앤스로픽 양쪽에 투자한 회사의 수장이 직접 프런티어 랩 의존의 위험을 공론화한 사례
- 핵심 논지는 "이중 지불" 구조. 기업들은 토큰 사용료로 한 번 지불하고, 모델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자사의 독점적 지식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지불한다는 것. 모델 성능을 높이려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지식을 투입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를 지적. 특히 위험한 지점으로 exhaust 학습을 지목. 사용자가 작성하는 프롬프트, 에이전트가 쓰는 도구, 그리고 모델이 틀렸을 때 사람이 가하는 교정이 모두 학습 재료가 되며, 모든 교정이 조직의 노하우로 종류(distill)된다는 논리. 경쟁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을 기업들이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다는 진단
- 종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됨. AI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에 대한 공정 이용 권리로 자유롭게 웹을 학습하면서, 정작 자사 모델에 대한 타사의 종류는 약관으로 제한하는 현상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함. 모델 제공사가 고객 사용·상호작용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권리를 유보하는 관행에 특히 우려를 표명

ASML(ASML.US): 2분기 컨센서스 전면 상회·연간 가이드선 대폭 상향

- 2분기 매출액 93.3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 88.5억 유로를 상회. 매출총이익률은 54.0%로 예상치 52%를 웃돌았고, 순이익도 29.2억 유로로 컨센서스 26.4억 유로를 넘어섬. 주당순이익은 7.59유로로 1분기 7.15유로 대비 개선. 수익성과 이익 규모 모두 전분기 대비 우상향 흐름 지속
- 3분기 매출 가이드선은 110억~120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 102.7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제시.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55~57%로 2분기 실적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연간 가이드선은 기존 360억~400억 유로에서 430억~450억 유로로 대폭 상향. 연간 매출총이익률 전망 역시 54~56%로 제시
- 가이드선 상향의 배경은 AI 관련 투자와 기술 발전이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 이에 대응해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 확장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 상반기 신규 수주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며 장기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 수주 잔고 기반의 실적 가시성 개선이 연간 가이드선 상향의 근거로 작용
- 생산 능력 확대 계획도 구체화. Low NA EUV는 2026년 약 65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2027년 30%, 2028년 추가 30%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DUV 장비 역시 2026년 약 130대 규모에서 2027년 30%, 2028년 추가 30% 증설을 검토. 장비 성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포트폴리오도 대폭 확장 계획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H200 대중 수출, 승인은 확대되나 실제 선적 규모는 미미

-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 제프리 케슬러의 하원 청문회 참석을 통해 엔비디아 H200의 중국·홍콩향 선적이 시작됐으나 물량은 '극소수'임이 확인됨. 청문회 후반에는 해당 물량을 '무시할 만한(trivial)' 수준으로 재차 표현. 지난 5월 약 10개의 중국 기업이 H200 구매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 선적 개시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됨
- 승인 절차는 기업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심사로 진행되며, 국가안보 요건 충족과 칩 컴플라이언스 검증을 위한 사찰 수용이 전제 조건. 실제 라이선스 신청이 각각되는 사례도 존재
- 다만, 병목은 미국 쪽 심사만이 아님. 중국 정부가 대량 수입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베이징은 자국 반도체 자립 기조 아래 자체 수입 제한을 유지해 왔으나, 국내 컴퓨팅 부족이 심화되자 알리바바·바이트댄스·딥시크 등에 제한적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총량은 20만 개 미만으로 기업들이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애플(AAPL.US): iOS 27 퍼블릭 베타 배포하며 온디바이스 AI 시대 개척 시도

- 애플이 iOS 27 퍼블릭 베타를 배포하며 전면 개편된 Siri AI를 개발자 외 일반 사용자에게 처음 개방함. 신형 Siri는 이메일·사진·메시지 등 기기 내 개인 정보 검색, 화면 콘텐츠 인식, 웹 지식 기반 응답이 가능한 대화형 비서로 재구축됨. 멀티턴 대화와 후속 질문 이해, 앱 내 단단계 작업 수행을 지원하며, 대화 이력을 저장하는 독립 Siri 앱이 신설되고 응답은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표시됨
- 애플 실리콘 전용으로 설계된 자체 모델에 구글 Gemini를 종류(distillation)해 만든 소형 고효율 모델을 iOS에 내장하는 방식이며, 개인 데이터는 Private Cloud Compute를 통해 애플이 저장·접근하지 않는 구조. 지난해 구글과의 제휴가 실제 제품 아키텍처로 구현된 첫 사례가 될 예정
- Siri AI 기본 기능은 아이폰 15 Pro 이상에서 작동하지만, 표현형 음성 등 상위 기능은 12GB RAM이 필요해 아이폰 17 Pro/Pro Max·에어와 M4 이상 아이패드로 제한됨. AI 기능이 기기 등급별 차별화 요소로 작동하며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역 리스크는 존재. 초기 지원 언어는 영어뿐이며 EU에서는 출시가 유보되고 중국은 규제 대응 문제로 지연 중
- iOS 27 퍼블릭 베타 배포한 같은 날 온디바이스 AI의 다음 단계를 겨냥한 움직임도 확인. 애플이 대형 AI 모델을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하게 압축하는 스타트업 PrismML과 초기 단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PrismML CEO 바락 하시비가 직접 공유. PrismML은 칼텍에서 스피아웃한 스타트업으로, 278억 파라미터 모델의 가중치를 표준 16비트 대신 1비트 또는 3개 값(ternary)으로 저장해 약 54GB를 최소 3.9GB까지 축소한 Bonsai 27B를 공개한 바 있음. 해당 크기면 아이폰 15이상에서 구동 가능. 압축 모델은 표준 대비 메모리 10~15분의 1, 응답 속도 6~8배, 전력 소모 3~6분의 1 수준이며, 1비트 버전은 아이폰 17 Pro에서 초당 11토큰을 달성

구글(GOOG.L.US): 답마인드 CEO, 프런티어 AI에 'FINRA 모델' 자율규제기구 제안

- 구글 답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가 "프런티어 AI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새 시대의 개막(A Framework for Frontier AI and the Dawning of a New Age)"이라는 제목의 X 게시글을 통해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를 심사할 독립 표준기구(Standards Body) 신설을 공개 제안. 모델은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FINRA(금융산업규제국). 프런티어 모델을 테스트하고 출시 관련 모범 관행을 개발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를 제안
- 작동 방식은 단계적으로 구상. 초기에는 프런티어 랩들이 출시 최대 30일 전 자발적으로 모델을 기구에 제출해 심사 받고, 평가 프로토콜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미국 시장 배포의 통과 요건으로 공식화하는 구조. 출시 후 발견되는 중대 취약점도 기구와 협력해 대응하는 방안 포함
- 제안의 직접적 배경은 앤스로픽의 Mythos와 오픈AI의 Sol에 대해 미 정부가 수행한 임시방편식 심사. 해당 심사는 기술 전문성 부족과 출시 허용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은 상태. 사전 정의된 프로토콜 없이 사안별로 진행되는 정부 심사를 상설 기구로 제도화하자는 취지
- 거버넌스 구조는 미 정부가 뒷받침하되 AI 업계가 자금을 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인력은 오픈소스 진영 대표와 업계 내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 인력 유치에 필요한 재원은 AI 랩들이 부담. 특정 리스크에 특화된 AI 안전 전문 그룹들에 평가 일부를 외주하는 방안도 제시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사티아 나델라 CEO "기업들은 AI에 두 번 지불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업들의 폐쇄형 AI 모델 사용에 대한 이례적 경고를 내놓음. 오픈AI와 앤스로픽 양쪽에 투자한 회사의 수장이 직접 프런티어 랩 의존의 위험을 공론화한 사례
- 핵심 논지는 "이중 지불" 구조. 기업들은 토큰 사용료로 한 번 지불하고, 모델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자사의 독점적 지식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지불한다는 것. 모델 성능을 높이려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지식을 투입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를

지적. 특히 위험한 지점으로 exhaust 학습을 지목. 사용자가 작성하는 프롬프트, 에이전트가 쓰는 도구, 그리고 모델이 틀렸을 때 사람이 가하는 교정이 모두 학습 재료가 되며, 모든 교정이 조직의 노하우로 종류(distill)된다는 논리. 경쟁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을 기업들이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다는 진단

- 종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됨. AI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에 대한 공정 이용 권리로 자유롭게 웹을 학습하면서, 정작 자사 모델에 대한 타사의 종류는 약관으로 제한하는 현상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함. 모델 제공사가 고객 사용-상호작용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권리를 유보하는 관행에 특히 우려를 표명

메타(META.US): 루이지애나 Hyperion 500억 달러·5GW로 확대

- 메타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Hyperion 데이터센터 슈퍼클러스터를 5GW 규모, 500억 달러 이상 투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캠퍼스 면적은 약 1,000만 제곱피트로, 메타 글로벌 인프라 중 최대이자 역대 최대급 데이터센터. 2024년 12월 착공 당시 100억 달러였던 프로젝트가 지난해 270억 달러로, 이번에 다시 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됨. 18개월 만에 5배 증액이며, 설계 용량도 당초 2GW에서 5GW로 확대된 것
- Hyperion은 GPU와 AI 전용 하드웨어를 집적한 슈퍼클러스터로,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차세대 모델 학습·구동 인프라. 엔비디아 GPU 외에 메타 자체 추론 칩 MTI 500 배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다만, 일정은 아직 불확실. 2030년까지 2GW 도달이 목표이나 5GW 풀 빌드아웃 완료 시점은 미제시. 또한 조달 구조가 주목할 변수. 지난해 10월 블루아울 캐피탈과 약 270억 달러 밸류에이션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블루아울이 80%, 메타가 20%를 보유하고 완공 시설을 메타가 리스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500억 달러 확대가 합작법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공개

SK하이닉스(000660.KS): 광노정 CEO "메모리 공급 부족, 2030년 이후까지 지속"

- SK하이닉스 광노정 CEO가 컴퓨터·자동차·디바이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핵심 근거는 고객 행동. 고객들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자체가 공급 부족이 더 오래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며, 이는 내년을 정점으로 보는 자체 분석과도 부합. 2027년이 공급 관점에서 업계 역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
- 구체적 논리는 수요-캐파 격차의 구조화. 고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격적 증설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까지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 것으로 예상
- 미국 생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전력·용수·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부지가 전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미국 내 AI 중심부로 이동해 생태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 현재 인도네시아에 약 40억 달러 규모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국 내 AI 솔루션 사업에 100억 달러 투자도 병행 중

오픈AI(비상장):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절취 소송 제기

-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절취 및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함. 오픈AI가 자체 소비자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애플의 지식재산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주장이며, 하드웨어 자회사 io와 개인 2인도 피고에 포함
- 소장의 표현 수위가 이례적. 기술직 직원부터 최고하드웨어책임자까지 "모든 층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조해 애플의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를 훔쳐왔다는 문구와 함께, 오픈AI의 신생 하드웨어 사업이 "절취된 영업비밀에 대한 불법적 의존으로 핵심까지 썩은 가장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명시
- 핵심 피고는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 탕 탄. 애플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아이폰·애플워치 제품 디자인 부사장을 지낸 인물로, 퇴사 전 애플 공급업체 정보를 자신에게 이메일로 발송했고, 오픈AI 채용 면접에서 애플 내부 프로젝트 코드명을 사용해 재직 중인 지원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캐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퇴사 절차 회피 조력 혐의도 적시됨. 오픈AI가 애플의 오프보딩 보안 점검을 피하는 방법을 이직자들에게 코칭했으며, 탄이 보유하거나 입수한 애플 내부 문건을 신규 채용자 교육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음
- 또 다른 피고 창 류는 애플에서 8년간 시니어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회사 지급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 퇴사했고, 버그를 이용해 퇴사 후에도 애플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해 기밀 기술 문서를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를 받음
- 공급망으로도 침해가 확장됐다는 주장. 오픈AI가 애플의 신뢰 파트너들에게 기밀 정보를 갖고 접근했으며, 한 파트너에게는 애플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켜 독자적 금속 마감 기법을 시연하게 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김
- 실제로 현재 애플 출신 400명 이상이 현재 오픈AI에 재직 중. 또한 양사는 2024년 ChatGPT의 아이폰 OS 통합으로 제휴를 맺었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됐고, 오픈AI가 애플 인텔리전스 내 ChatGPT 통합 방식을 놓고 계약 위반 통지를 검토했던 정황도 있는 상태. 양사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할 때, 소송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SML(ASML.US): 2분기 컨센서스 전면 상회·연간 가이드런스 대폭 상향

- 2분기 매출액 93.3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 88.5억 유로를 상회. 매출총이익률은 54.0%로 예상치 52%를 웃돌았고, 순이익도 29.18억 유로로 컨센서스 26.4억 유로를 넘어섬. 주당순이익은 7.59유로로 1분기 7.15유로 대비 개선. 수익성과 이익 규모 모두 전분기 대비 우상향 흐름 지속
- 3분기 매출 가이드런스는 110억~120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 102.7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제시.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55~57%로 2분기 실적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연간 가이드런스는 기존 360억~400억 유로에서 430억~450억 유로로 대폭 상향. 4월 실적 발표에서 340억~390억 유로를 360억~400억 유로로 올린 데 이은 두 분기 연속 상향. 연간 매출총이익률 전망 역시 54~56%로 제시
- 가이드런스 상향의 배경은 AI 관련 투자와 기술 발전이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 이에 대응해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 확장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 상반기 신규 수주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며 장기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 수주 잔고 기반의 실적 가시성 개선이 연간 가이드런스 상향의 근거로 작용
- 생산 능력 확대 계획도 구체화. Low NA EUV는 2026년 약 65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2027년 30%, 2028년 추가 30%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DUV 장비 역시 2026년 약 130대 규모에서 2027년 30%, 2028년 추가 30% 증설을 검토. 장비 성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포트폴리오도 대폭 확장 계획

IBM(IBM.US): 실적 경고가 확인시킨 기업 IT 예산의 구조적 재배분

- IBM CEO 아빈드 크리슈나가 2분기 잠정 실적 공개와 함께 사이버 우려를 고객사 최우선 이슈로 지목하자 사이버보안주가 일제히 급등함. 클라우드스트라이크 12%, 옥타·넷스코프 각 11% 안팎,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지스케일러·센티넬원·세일포인트 약 7% 상승
- IBM 2분기 잠정 매출은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성장, 조정 EPS 2.27달러로 컨센서스(매출 178.5억 달러, EPS 3.02달러)를 크게 하회했고, 주가는 25% 하락. 정식 실적 발표는 7월 22일 예정
- 발언의 핵심은 앤스로픽의 Mythos가 기업 구매 결정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것. "Mythos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버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되묻고 있으며, 답을 알기 전까지 신규 딜을 보류하고 있다"는 설명. 분기 말 다수의 대형 계약이 보류됐고, 급변하는 업계 전반의 사이버보안 우려가 고객사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고 얘기함
- 예산 이동의 방향성도 확인됨. 고객사들이 향후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존 하드웨어 대신 서버·스토리지·메모리 구매로 지출을 옮기고 있음. 메모리 부족 국면에서의 선구매 수요를 방증. 이 코멘트에 마이크론·샌디스크가 5% 안팎 동반 상승한 반면, 지출 재배분이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번질 우려에 서비스나우 4%,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

우주/로봇

스페이스X(SPCX.US): Starship 비행 재개 승인

- FAA(미 연방항공청)가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시험비행 재개를 승인함. 5월 비행에서 발생한 부스터 실패의 유력 원인이 규명된 데 따른 조치이며, 다음 비행은 이르면 7월 16일 목요일로 예정
- 이번 발사를 통해 스타링크 3세대 위성의 첫 실전 배치가 예정됨. 3세대 위성은 기존 2세대 대비 다운로드 10배 이상, 업링크 24배의 성능을 낼 것으로 보임. Starship 1회 발사로 3세대 최대 60기를 배치해 회당 60Tbps의 다운로드 용량을 추가하는 구조로, 팰컨9의 2세대 Mini 발사 대비 회당 20배 이상의 용량 증분이 예상됨. 현재 스타링크 전체 네트워크 용량이 약 350Tbps 수준임을 감안하면 발사 6회면 기존 전체 용량에 맞먹는 규모가 더해질 수 있음. 이번 비행에서는 지난번 비행과 달리 더미가 아닌 실물 3세대 위성 20기를 전개하며, 이들은 고용량 레이저로 기존 스타링크 군집과 연결된 뒤 전개 약 20분 후 대기권에서 소각될 예정. 6기에는 Starship 외부 촬영용 카메라가 탑재됨.
- 5월 22일 스타십 V3 첫 비행의 성과와 한계는 혼재. 슈퍼헤비 부스터가 407피트 로켓을 우주로 올렸고 상단부는 위성 시뮬레이터 20기와 개조 스타링크 2기를 전개한 뒤 멕시코만 착수 시뮬레이션까지 성공했으나, 부스터는 멕시코만 모의 착륙을 위한 엔진 재점화에 실패하며 해상에 추락함

프론티어 항공(ULCC.US): 스타링크, LCC 1,000대 수주

- 프론티어 항공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도입을 발표함. 첫 스타링크 탑재 에어버스 기체는 2027년 초 투입 예정이며, 현재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프론티어로서는 처음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번 계약의 실제 규모는 프론티어 단독 건을 훨씬 넘어섬. 프론티어와 함께 유럽의 위즈 에어, 멕시코의 볼라리스, 칠레의 젯스마트, 필리핀의 세부퍼시픽 등 5개 저비용 항공사가 합산 1,000대 이상의 기체에 스타링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역대 최대급 기내 커넥티비티 배치가 진행되는 것. 5개사를 묶는 공통본모는 사모펀드 인디고 파트너스. 항공 전문 투자자 빌 프랑크가 이끄는 인디고가 5개사 모두의 투자자로, 포트폴리오 차원의 일괄 계약 구조. 계약 조건은 미공개
- 프론티어는 미국 항공사 중 마지막까지 와이파이를 도입하지 않은 측에 속했던 회사. 전임 CEO 배리 비플은 장비 탑재에 따른 기체 중량 증가를 도입 주저의 이유로 들었던 바 있으며, 와이파이·기내 엔터테인먼트·전원 콘센트를 배제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기존 모델이었음. 그랬던 프론티어가 스타링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화 압박 때문. 대형 항공사들이 기체 전방 프리미엄 좌석에서 매출 성장을 뽑아내면서 초저가 모델의 수익성이 흔들리자, 프론티어도 내년 퍼스트클래스 좌석 도입과 로열티 프로그램 개편을 병행 중

보스턴 다이내믹스(비상장): Spot을 라스트마일 배송 보조로 실증

-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사족보행 로봇 Spot을 택배 배송 보조로 활용하는 라스트마일 솔루션을 시험 중이라고 공개. 배송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 뱅에서 고객 현관까지 패키지를 대신 옮기는 '팀메이트' 역할이 콘셉트
- 작동 방식은 분업 구조. Spot이 중형 패키지 2개를 동시에 적재해 현관까지 왕복하는 동안 기사는 차량에서 다음 배송을 준비하는 형태로, 기사가 긴 진입로를 반복해서 오가는 신체 부담을 줄이면서 교대 근무당 배송 완료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 사족보행의 지형 대응력이 차별화 포인트. 보도 주행에 묶여 있는 기존 바퀴형 배송 로봇과 달리 계단 등반, 자갈길, 연석, 다양한 현관 구조 등 비정형 지형을 통과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패키지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동작까지 구현됨
- 장기 비전은 자동화 수준의 단계적 상향. 향후 배송 차량이 Spot에 패키지를 자동 적재하고, 저장된 배송 경로를 통해 익숙한 동네에서는 로봇이 더 높은 독립성으로 주행하는 구도까지 제시됨. 현 단계는 실증 성격으로, 상업 파트너나 배치 일정은 미공개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7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